

지평지성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한경BUSINESS** 국제면 기고)

법무법인 지평지성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는 2010년 9월부터 경제주간지 '한경비즈니스' 국제(Global)면에 정기적으로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러시아, 일본, 브라질, 필리핀, 인도네시아, 미얀마, 태국, 호주 등 한국기업 및 자본의 진출이 활발한 해외 각국의 주목할 만한 동향을 기고하고 있습니다. 기고되는 내용은 지평지성 Global Business Newsletter에 모아서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미얀마]

No. 848 | 2012. 3. 7.

정부 개혁 정책 추진... 외국인 투자 활기



정철 법무법인 지평지성 파트너 변호사

미얀마는 한반도의 3.5배에 이르는 넓은 국토를 가지고 있고, 천연가스, 석유, 구리, 아연, 주석, 텅스텐, 니켈 등의 지하자원과 루비, 사파이어 등의 보석류, 티크 등 산림자원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다. 6천만에 이르는 인구, 3,000km에 달하는 해안선, 인도, 방글라데시, 중국, 태국, 라오스, 말레이시아 등과 접경하고 있는 지정학적 위치도 미얀마의 경제적 가치를 대변해 준다.

풍부한 자원과 잠재력을 가진 나라이지만, 서방의 경제제재로 인해 경제발전이 미루어져 왔다. 미국은 1997년 미국인의 미얀마 자원에 대한 투자를 금지했고, 2003년에는 미얀마와의 자금교류와 미얀마 생산제품의 미국 수입을 금지했다. 유럽연합도 미얀마에 대한 무기수출을 제한한데 이어, 2008년에는 미얀마인 명의의 자산을 동결했다...(중략)

- [한경 비즈니스 인터넷 페이지](#)